

# 새로운 밀레니엄으로 향하는 책잔치

'99 서울국제도서전 한국종합전시관에서 ... 1일부터 6일간 1천5백여사 참가



지난 1일부터 열린 '99 서울국제도서전'에는 애서가인 김대통령도 참석. 행사의 상징적 의미를 더욱 높였다. 사진은 지난해 도서전 전경.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가 주최하고 문화관광부(장관 박지원)·한국서점조합연합회(회장 이창연)가 후원하는 '99 서울국제도서전'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책으로 열자, 새로운 천년'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한국종합전시관 태평양관에서 열렸다. 총 18개국 1천5백여 출판사가 참가, 약 20여만권을 전시한 이번 도서전은 지난해에 비해 53개 출판사, 52개 부스가 증가해 국제도서전에 걸맞은 전시 규모를 자랑했다. 특히 국내 일반 단행본 출판사들의 참여가 늘어 도서전의 균형성을 높였다.

지난 1일 오전 11시에 열린 개막식에는 김종필 국무총리,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 나춘호 출협회장 등 국내외 내빈 18명이 개막 테이프를 끊고 전시회장을 둘러보았다. 박지원 장관은 축하메시지에서 "책 속에는 삶과 지혜 그리고 희망이 있다"며 올해 도서전이 새로운 천년의 비전을 세우는 뜻 깊은 행사가 되길 바랐다.

한편 2일에는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김대중 대통령이 전시회장을 찾았다. 문화관광부가 주관한 '읽으면 행복합니다' 전국민 책읽기운

동이 펼쳐지는 시점에서 국가 수반이 책문화의 집결지를 찾아 행사의 상징적인 의미를 더했다.

김대통령은 '책으로 열어온 오천년, 책이 열여덟 새 천년' 특별 기획전을 관람하고, 한국도서보급(주)에서 도서상품권을 구입한 후 민음사 부스에 들러 관람은 초·중·고등학생에게 30여종의 책을 선물하며 청소년시절 책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애서자로 잘 알려진 김대통령은 10여종의 책을 직접 구입하기도 했다.

특별기획전으로 마련된 '책으로 열어온 오천년, 책이 열여덟 새 천년'전은 민족문화의 정수를 기록한 책을 총체적으로 재조명했다. 산경문전·임신서기석 등 삼국시대부터 전자출판물의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신사적 관점에서 역사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책 변천 과정을 시각화했으며, 2천년대 미래출판물 '매직미러' 등을 이용해 가상으로 꾸몄다.

그밖에 프랑스 악트스드 출판사에서 출간된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미국 샤프출판사에서 간행된 채만식의 《태평천하》 등 외국에서 번역출판된 우리책과 국내에서 외국어로 발행된 도서 등 600여종을 전시한 '우리 책, 해

의 출판 도서전', 한국출판미술협회와 한국만화가협회가 각각 주관한 '책읽는 모습들 엮서 그림 원화'전과 '한국만화의 오늘'전도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부대행사로도 전시기간 동안 SBS라디오 <책하고 놀자> 특집방송을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은희경·김홍신·이문열 등의 작가가 출연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서길수 교수의 <고구려 역사유적답사> 슬라이드 강좌도 진행됐다. 그밖에 국민독서진흥방안을 모색한 '독서진흥을 위한 도서관의 협력체계 구축' 세미나와 국제출판 전문인 회의도 개최됐다.

국제도서전의 면모에 걸맞게 중국의 인문문학출판사, 프랑스의 프랑스에디씨옹, 독일의 베텔스만, 일

본의 고단샤 등 외국 우수 출판사들이 참가했고, 저작권 상담도 활발했다. 특히 서울국제도서전이 열린 이후 처음으로 12개 부스에 미국단체관이 선보였다. 아직은 롱맨·맥그로힐 등 국내지사를 중심으로 참가했지만 미국이 한국 출판의 시장성에 대해 인식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도서전은 지난 한해 IMF체제로 인한 불황한파의 국난을 헤쳐온 우리 출판문화의 변함없는 역량을 보여줬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위기 속에서도 중단없이 '좀 더 깊이 좀 더 독자결으로' 찾아간 성숙한 출판문화를 보여줬다. 또한 전세계 출판인들이 모임으로써 우리 출판의 세계화를 모색하는 소중한 만남의 장이기도 했다.

—박천홍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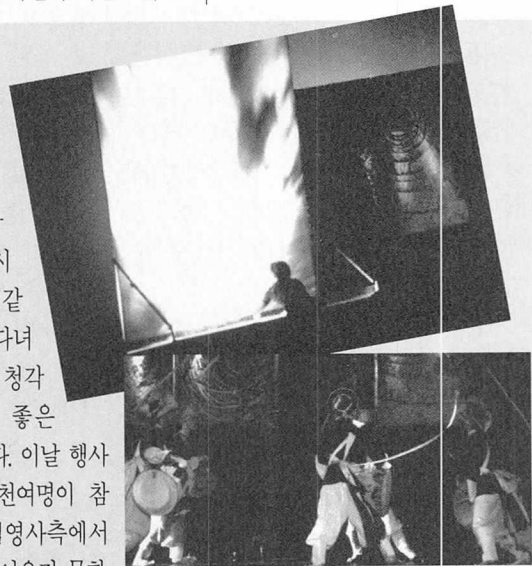
## 김영사·나남 스무돌 행사

독특한 창립기념행사로 재출발 다짐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나남출판과 김영사가 창립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치렀다. 김영사(대표 박은주)의 행사는 지난 5월 21일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책과 음악과 그림의 행복한 만남'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예술의 각 장르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화합의 장이 됐는데, 피아노를 연주한 음악가 임동창씨는 아쟁의 김영길씨, 판소리의 전인삼씨와 어울려 신들린 무대를 보여줬다. 화가 김인식씨는 미술작품과 함께 '물의 피아노'를

이용해 청각적 요소를 시각화했다. 이같은 시도는 다녀간 600명의 청각장애인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는 모두 4천여명이 참석했는데, 김영사측에서는 강당에 들어오지 못한 관람객을 위해 밖에 대형 화면을 설치했다.

한편 나남출판(대표 조상호)은 지난 25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창립기념회를 가졌다. 350여명이 참석한 이 행사는 조상호 대표의 20년 출판 경험을 학문적으로 정리한 <한국 언론과 출판저널



청각장애인에게 호응을 얻은 화가 김인식씨의 '물의 피아노'와 행사무대를 여는 사물놀이.

리즘)의 출판기념회를 겸해 뜻을 더했다. 김영석 교수(연세대 신방과)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회에서 일조각 한만년 대표와 언론인 김중배씨가 나남출판이 걸어온 20년에 대해 축사를 했고, 조상호 대표의 답사가 이어졌다. 그동안 반년간지로 발행되던 <사회평론>이 창간 10주년, 통권 20호를 맞아 계간지로 재출발하며 더욱 많은 독자에게 다가갈 것을 함께 약속했다. <이현주>



조상호 사장의 출판기념회를 겸한 '나남'의 창립 기념 행사.

# 독자와 함께 즐거운 소통의 자리

출판사들 이색 출판기념회로 독자와 어울려



마고밴드의 연주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는 출연자와 스태프들 그리고 관객.

최근 이색출판기념회로 눈길을 끄는 출판사들이 등장하고 있다. 도서출판 이프(대표 윤석남)에서는 《미스코리아대회를 폭파하라》를 펴내면서 '안티미스코리아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지난 15일 문화일보홀에서 가진 이 행사는 미인대회를 통해 유포되는 아름다움의 기준을 다시 생각한다는 취지로 장애인, 80세 할머니, 캐나다인 등 연령제한·치수제한 없이 다양한 여성들이 참가해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보여줬다.

심사위원을 대신한 폭파위원은 미스코리아대회를 패러디한 뮤지컬을 보여준 노허즈밴드, 캐나다

행위예술가 트리샤와 한국 여성학 강사 한고미라가 보여준 이중무에 각각 '안티미스코리아상'과 '아름다운 자매상' 등을 줬다. 부상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행사가 끝난 후에는 400여명의 관객이 객석에서 일어나 스태프, 참가자들과 함께 즐겁게 어울렸다.

이프는 출판기념회로 기획된 것이지만 자리를 얻지 못해 돌아간 200여명의 관객을 위해서라도 매년, 미인대회가 없어질 때까지 이 행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프의 홍보담당자 김영란씨는 "이프가 하면 재미있다고 소문났다"며 앞으로 펴낼 《페미니스트가 하는 요리》

(가제)도 요리대회 같은, 모두가 어울리는 이벤트성 출판기념회를 할 작정이라고 밝힌다.

어린이전문출판사 보림(대표 권종택)에서는 지난 5월 1일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목장갑으로 인형만들기' 행사를 벌였다. 얼마전 출간한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에 수록된 내용을 직접 시연하는 행사. 찾아온 어머니들에게 목장갑 및 단추 등 인형 재료 일체를 나눠주고 진행했다. 행사를 통해 지난해 출간했던 《누구나 쉽게 만드는 장갑인형》을 홍보하는 효과도 거뒀는데, 어린이책의 실구매자인 엄마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알짜행사라 눈길을 끌었다.

한편 지난해 보리(대표 정낙목)의 《옛이야기 보따리》 완간 기념출판기념회도 책에 나오는 옛 노래를 어린이들이 배울 수 있는 순서를 마련, 호응이 높았다. 이제까지의 딱딱하고 지극적인 출판기념회에서 벗어나려는 이같은 출판기념회는 독자와의 즐거운 소통이라는 면에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현주 기자

## '99 한·중·일 대학출판협회 공동회의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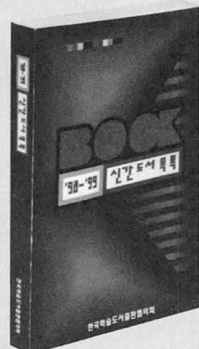
한국대학출판부협회(회장 김용덕)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대 문화관 국제회의실에서 '대학출판의 사회적 역할'을 주제로 '1999 한국·중국·일본 대학출판협회 공동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이광래 강원대 교수가 '대학출판의 사회적 출판', 서지위 중국북단대출판부 사장이 '대학출판사의 역할과 지위', 산구야기 동경대 출판회 판매부장이 '대학출판부의 사회적 역할-동경대학을 중심으로' 등을 각각 발표했다.

## 한국문화복지협의회, '한국문학 100년 대표작 읽기 강좌' 열어

한국문화복지협의회(회장 이중헌)는 이달 1일부터 7월 13일(매주

## 한국학술도서출판협회의 《'98~'99 신간도서목록》 발간

한국학술도서출판협회의(회장 강희일)는 《'98~'99 신간도서목록》을 발간했다. 종류·기술과학·철학·예술 등 분야별(KDC) 학술도서목록, 출판사명단 및 신간도서목록, 색인 등을 수록했다. 특히 정확한 판권사항 및 ISBN과 함께 내용에 대한 간략한 소개까지 포함해 학술·전문도서의 정보적 가치를 극대화시켰다.



화요일 10~12시)까지 경기도 안양 노충문화정보센터에서 '한국문학 100년 대표작 읽기 강좌'를 연다. '찾아가는 문화학교' 프로그램의 하나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홍명희의 《임격정》, 이광수의 《무정》 등 한국문학의 대표작편을 선정했으

며 문학평론가 김병익, 출판평론가 이중한 등이 강사진으로 참여한다. (542-5131) ◆

## 출협, 한국어린이도서상 및 한국과학기술도서상 선정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는 지난달 26일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제20회 한국어린이도서상 및 제17회 한

국과학기술도서상 시상식을 거행했다. 98년 3월~99년 2월 사이에 간행된 도서를 대상으로 한 이번 시상식에서 한국어린이도서상으로는 강정규의 《청거북 두마리》(국민서관)가 저작상을, 《록엔썩크 수학동화(17) 거인 쿠키의 키재기》(한국듀이)를 그린 박철민씨가 일러스트레이션상을, 그리고 웅진출판(주)의 윤석금 대표가 《21세기 웅진학습백과사전》(전21권)으로 기획·편집상을 수상했다.

과학기술도서상에는 송은영의 《과학원리로 떠나는 창의력 여행》이 저술상을, 《이 세상을 다시 만들자》(지호)를 번역한 최용주씨가 번역상을, 《밀레니엄박스》(1~7)와 《거미의 세계》를 펴낸 아카데미북스의 주성우 대표와 다락원 정효섭 대표가 각각 출판상과 특별상을 받았다.

## 한국출판아카데미 설립 편집자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김언호)는 '한국출판아카데미' (원장 임성규)를 설립, 출판인 전문교육과 출판관련 지식 및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달부터 '출판 편집자 과정'을 개설한다. 오는 11일부터 9월 7일까지 3개월간 매주 화·금요일 오후 4시부터 2~4시간씩 진행되며, 출판인회의 회원사 사원 및 예비출판인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모집을 마쳤다.

이번 강의는 출판론·기획론·편집론·출판제작론 등 총 28강과 72시간으로 이뤄지며 37명의 전문 강사진이 강의를 맡는다. 3444-0622~4 한편 출판인회의 '독서진흥회' 분과에서는 '이달의 책'을 선정하기로 했다.

## 한국학술도서출판협회의 회장에 진옥상 백산출판사 대표

한국학술도서협회의(회장 진옥상)는 지난 27일 신촌 거구장에서 제8차 정기총회를 개최, 회장에 진옥상 백산출판사 대표, 감사에 고준영 범영사 대표와 김병계 보문당 대표를 선출하고, 강희일 다산출판사 대표를 명예회장에 추대했다.

## 영진출판사, 강남 초·중학교에 컴퓨터 교재 1억원 기증

컴퓨터 전문출판사인 영진출판사(대표 이문철)는 학교정보화를 위해 지난 26일 강남교육청을 통해 강남일대 초·중학교에 약 1만여권의 컴퓨터 도서 1억원어치를 무료로 기증했다. ◆

## 한국전자출판협회 창립총회 개최



한국전자출판협회(회장 김경희)는 지난 26일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문화관광부 소관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개최, 김경희 첫 회장을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관과 사업계획안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출했다.